

## 식품 수출 정보

### 日, 清涼飲料 輸入 急増勢 지속적

— 올 輸入量 25만kl 예상, 海外委託 生産 發 —

日本에서는 최근 콜라, 汁, 커피등 량음료의 入量이 급증하고 있다. 本관세당국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금년 1~4月的 량음료 入量은 약 5,500kl, 액으로는 49억 7,300만 엔으로 前年 동기 대비 2.4배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日本の 량음료 入은 '77년까지는 1천kl 전후로 미미한 실정이었다, 78년에 4천kl, 79~80년에 접어들면서 高를 고비로 2만 5,500kl로 배증했고 87년 10만 4천kl로 10만kl를 넘게 되면서 본격적인 入 量음료 시대를 열게 된 것이다.

현재 入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일본에서도 손쉽게 사서 마실수 있는 것들로 콜라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현지에서는 통상 판매되고 있는 캔의 용량이 250ml인데 비해 入品은 350ml로 동일한 가격(100엔)에 100ml의 차가 있어 저렴한 가격이 젊은층의 미를 당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日本の 상사나 小企業 그리고 유통업자들은 87년부터 口이나 우리나라로 부터 入을 증가시켜 왔으며 88년부터는 外委託 生産을 일제히 시작 했는데 이는 高를 배경으로 위탁 生産을 할경우 캔 값은 절반정도에 조달할수 있는등 製造 코스트가 2할 정도 절감될수 있다는 점외에도 소비자의 향이 入품 선호로 점차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本內 최

대규모의 코카콜라 산업체인 本코카콜라는 ' 入량이 증가 했다고 해도 國內 生産量에 비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현재 100엔에 판매되고 있는 250ml를 350ml로 교환 續하고 시험적으로 國에서 품을 入하는 등 入品에 對한 대응조치를 서두르고 있다.

현지 량음료 入시장의 國별 점유율을보면 國이 87년에 34.4%, 88년 1~4월에 53.3%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뒤를 이어 87년이 3.9%에서 88년 1~4월에는 10.0%로 착실히 시장을 늘려가고 있다.

### 말레이시아, 야자油 및 후추 輸出稅 調整

— 야자油 16.1% · 후추는 引下조치 —

말레이시아 정부는 Palm oil을 비롯한 후추 등의 輸出稅를 調整하여 8月10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최근 輸出호조를 보이고 있는 야자油및 고무는 각각 16.1%와 9.0%씩 輸出稅를 인상했고 후추는 品種에 따라 14.0%에서 41.7%까지 인하 했다.

이러한 조치는 輸出과잉 또는 감소에 따라 말레이시아 國內 製造業의 공급부족현상이나 급격한 輸出력 감소현상을 예방하기 위한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말레이시아의 原資材 輸出稅 변동으로 야자유및 고무를 다량 輸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한 輸入가격 상승의 부담이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關連 原資材를 말레이시아로 부터 輸入한 실적은 '87年中 야자油 10만 2.912t(3.456만弗), 고무 17만 1.852t(1억 5.383만弗) 그리고 후추를 1,316t(586만弗) 구매했다.

이락, 輸入食料品 有效期間 및 아랍語 · 英語 表記의무화

이락 保健部는 지난 7月30日 이후 부터 해외에서 輸入되는 모든 食료품에 대해 內容物名 · 有效期間 · 生産地名 · 重量 · 生産一字등을 아랍語와 英語로 표기토록 하는 한편, 內容物은

品質標準品에서 채택한 기준에 일치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어 수출업체는 이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 요르단, 輸入 대폭 自由化

### — 34개品目 輸入禁止해제, 關稅는 50% 이상 고율 부과키로 —

요르단 정부는 8월13일자로 지금까지 수입이 금지되었던 대부분 품目の 輸入을 자유화하기로 했다.

또한 수입이 자유화된 품목에 대해서는 自國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50%이상의 고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한다.

輸入이 自由化된 34개品目中 식품류로는 마카로니, 천연효모, 야자유로 만든 식물성 Shorting, 과일쥬스, 소다수, 아이스크림 및 빙과류, 올리브유, 인조분말음료등이고 토마토Paste, 우유 및 분유, 요구르트, 백치즈, 미네랄수, 식품소금등은 輸入禁止 未解除 品目으로 남아있다.

요르단은 지금까지 극단적인 輸入禁止조치에 의해 自國生産을 보호해 왔으나 수입금지 보호를 받아온 업체들이 他業體의 설립이 규제된 상태에서 獨占企業으로 성장하면서 정부의 수입금지 조치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한다. 금번 요르단의 輸入自由化조치로 우리나라는 여러분야의 對요르단 수출을 증대시킬수 있을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 인도네시아, 89년도 설탕輸入量 40만톤 예상

### — 內需증가, 사탕수수收穫 감소로 輸入확대 불가피 —

인도네시아의 설탕 수입물량이 89년도에 40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87년부터 식료품 및 의약품산업의 활성화에 따라 설탕의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87년도의 가뭄으로 인한 사탕수수 수확감소로 인해 수입확대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인도네시아의 사탕수수 주요 생산지인 자바섬의 경우 보다 收益性이 높은 作物로서의 경작지 변경이 계속되고 있어 사탕수수 生産計劃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바섬 이외의 지역에서 사탕수수 경작지를 확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자바섬에서 경작하는 것에 비해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土質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탕수수 수입확대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인도네시아의 설탕輸入실적

(단위: 천t, U.S\$ 천)

연도별	물 량	금 액
1982	686	419,067
1983	164	129,292
1984	—	62
1985	—	6
1986	26	5,501
1987	129	25,286

따라서 현지 관련업체에서는 정부가 특별한 긴급대책을 수립하지 못하면 설탕수요는 증가하는데 비해 국내 생산량은 오히려 감소해, 설탕수입을 계속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설탕수출은 80년대 들어 크게 감소해서 84년에는 수출이 중단 되었었다.

그러나 87년이후 인도네시아 설탕 수요증대에 힘입어 88년부터 재개 되었으며 5월말현재 790만톤을 기록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어 향후 수출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 對파키스탄 天然쥬스 生産플랜트 輸出有望

### — 清涼飲料 物品稅높아 天然쥬스 需要크게 伸張 —

파키스탄의 천연 과일쥬스 수요증가와 더불어

어 신규시설 투자가 예상되고 있어 플랜트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천연과일 주스의 수요규모는 지난 7년간 무려 3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88년 기준 연간 수요규모는 2억3,790만병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오는 92/93년도에는 이보다 약 250% 늘어난 8억3,340만병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같이 파키스탄의 천연주스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은 매년 3%가 넘는 인구증가와 소득증대에 따른 것으로 특히 파키스탄 정부는 청량음료에 對해선 천연주스보다 10배 이상의 物品稅를 더 부과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천연주스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 파키스탄의 천연주스 및 청량음료 소비현황

(단위: 백만명)

연도별	천연주스	청량음료
80/81	35	642
81/82	41	733
82/83	43	643
83/84	71	846
84/85	94	800
85/86	140	896
86/87	183	1,003
87/88	237.9	—

[자료: 파키스탄 경제 예측자료 8月号]

파키스탄의 천연주스 생산업체는 14개사로 이들 업체들의 총생산 시설규모는 년 2억7,900만병에 불과해 앞으로의 수요충족을 위해서는 기존 공장시설의 확충이나 신규 시설투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C, 第3國產 양송이통조림 쿼타 조정

— 우리나라, 上半期중 輸出不振으로 대폭 축소 —

EC는 7월 27일자 官報를 통해 88년도 제3국산 양송이 통조림에 대한 輸出쿼타량을 아래 表와 같이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 評 價

81년부터 제3국산 양송이 통조림에 대해 輸入規制조치의 일환으로 일방적 國別쿼타제를 실시하고 있는 EC는 매년말에 쿼타량을 회원국별로 할당해서 발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들어서는 상반기 중 수출국의 對EC 수출실적을 감안해서 쿼타량을 조정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금번 쿼타량 조정시 우리나라產 양송이 통조림에 대한 쿼타량이 대폭 감소된 것은 上半期중 수출실적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產 양송이 통조림의 87년 총수출은 512만弗로 이중 對EC 수출은 13만弗를 기록해서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달했다.

(단위: NET ton)

국 별	중 국		한 국		대 만		홍 콩		기 타	
	당초	조정후	당초	조정후	당초	조정후	당초	조정후	당초	조정후
벨 지 움 룩셈부르크	268	268	—	—	48	48	—	—	—	—
덴 마 크	855	600	20	20	—	—	—	255	—	—
서 독	25,926	29,681	2,960	360	1,839	2,139	433	178	1,683	483
그 리 스	15	15	5	5	137	137	—	—	20	20
프 랑 스	10	10	—	—	18	18	—	—	2	2
이 태 리	—	—	—	—	25	25	—	—	20	20
화 란	71	86	15	—	68	68	—	—	10	10
영 국	127	127	—	—	161	161	—	—	—	—
스 페 인	3	3	—	—	10	10	—	—	—	—
포 르 투 갈	—	—	—	—	—	—	1	1	—	—
합 계	27,275	30,790	3,000	385	2,306	2,606	434	434	1,735	535